

與 “문재인” 野 “김기춘”...청문회 증인 격돌

세월호 국조 활동 증인 선정 싸고 진통

오늘 특위 전체회의...합의도출 어려울듯

여야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청문회 증인 선정을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진상 규명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히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5조4항)’에 따르면 출석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며 여야는 늦어도 28일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의결해야 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지난 24일에 이어 27일 저녁 증인 채택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선다.

두 간사는 지난 25일 서로가 요구하는 증인 명단을 교환했으나 진상 규명의 포인트가 달라 증인 선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일단 세월호 사고 당일 신고 및 구조 과정의 문제점, 유병언 일가의 재산 축적 과정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당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97년 부도를 낸 뒤 참여정부에서 2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했다”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전해철 의원도 증인 명단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청와대가 컨트론타워 역할에 실패한 데다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선이 해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보도 통제 의혹도 제기

된 만큼 이경현 전 홍보수석의 증인 출석과 전체적인 재난관리 시스템과 관련,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당시 선박 연료

완화를 추진했던 관계자들도 핵심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이경현 경찰청장과 순천경찰서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증인 명단을 꾸렸지만,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8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열기까지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과 함께 증인 신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청문회를 통해 정치 공세를 벌이자는 것”이라며 “한심하고 유치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문재인 의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몰타기”라며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재보선 사전투표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6일 광주 광산구 수완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야, 재보선 승패 따른 정국 시나리오

與 승리시, 김무성 대표 체제 연착륙

野 이기면, 세월호법 등 목소리 커질듯

7·30 재·보선은 여야 모두에 정국 주도권은 물론 당내 역학구도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인 15곳에서 그것도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고 있어 민심의 향배를 판단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새누리 승리시-박근혜 대통령 정국 주도=새누리당이 15개 선거구 중 9개 이상에서 후보를 당선시키는 승리를 거둔다면 세월호 참사와 잇단 공적후보 자 낙마사태 등으로 상실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할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또 지난 14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무성 대표 체제도 연착륙 할 전망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으로선 내용에 직면하게 될 악몽의 시나리오다. 지난 3월 야권 통합으로 출범한 김한길·안철수 ‘투톱’의 리더십은 중대기회에 서게 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친노(친노무현) 등

구주류를 중심으로 ‘조기 전대’를 요구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야당 승리시-대여강공 모드=새정치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9석 이상 차지하며 승리한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의 궤도를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비롯해 정부조직법안 처리, 세월호청문회 등 주요 현안 마다 대어 강경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안 공동대표는 리더십의 위기를 넘기며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임기를 채울 모멘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애매한 무승부-여야 교착상태=여야가 절반 정도씩 나눠가지면서 어느 쪽도 승리했다고 말하기 힘든 모호한 성적표로 받아들여진 현재의 어정쩡한 세력 균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30 재보선 브리핑

신정훈, 5일장·교회·상가 돌며 막판 표심 잡기 총력

7·30 나주·화순 재선거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후보는 선거일 전 마지막 휴일인 27일 나주 5일장과 화순 지역 교회, 상가 등지를 돌며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신 후보는 이날 오전 나주시 동창 5일장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손을 맞잡고 “농민과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화순 봉양교회 등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화순지역 상가를 돌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강백수 “나주 농업경제도시, 화순 의약·생물메카로”

7·30 나주·화순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백수 후보는 27일 “나주시를 농업경제 거점도시로, 화순군을 의약·생물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주는 생물산업진흥재단을 혁신도시의 농·생명관련 공공기관 관련기업 및 연구소들과 연계하고, 식품과 바이오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또한, “화순군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정체성 유지와 지역공동체의 조화를 통해 화순만의 랜드마크를 구축할 것이며, 농심자 백신 생산 공장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입지성을 살린 특화된 의약·생물산업의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정원, 세월호 운영·관리 깊이 개입” 주장 논란

가족대책위, 노트북 문건 공개...국정원 “국가보호장비 차원”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 관리 등에 깊이 개입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 증·개축, 운항, 관리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노트북은 가족 측이 증거보전 신청한 것으로 2개월가량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발견됐다. 대책위는 이날 복원한 노트북에서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2013년 2월 27일 작성한 이 문건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이란 제목으로 100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됐다. 세월호 첫 출항(2013년 3월 15일) 보름 전에 국정원이 점검한 것으로 돼 있다. 문건에는 천정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

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바닥 타일 교체, CCTV 선정 등 매우 상세한 작업 내용이 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문건에 국정원이 직원들의 3월 휴가 계획서와 2월 작업 수당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런 정황은 세월호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최고위원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아침 긴급 현안질문을 요청해 화요일(29일) 정보위를 개최해 세월호 참사만 놓고 현안질의를 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 최고위

원은 “1000급 여객선이 17척인데 유일하게 세월호만 보고를 받으면서 왜 소유주처럼 행사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옛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 요청(2013년 2월 20일)으로 세월호의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해 ‘보안측정’을 했다고 해명했다. 일정 규모의 선박·항공기는 전쟁·테러 등 비상사태 시 적(敵) 공격으로부터 우선 보호하기 위해 보안측정을 통해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한다.

가족대책위가 주장한 ▲천정 칸막이 및 도색작업 ▲자판기 설치 ▲바닥 타일 교체 ▲직원 휴가계획서 제출 등 사항은 국정원의 보안측정 대상이 아니며 세월호 증개축과 국정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흥
BNC빌딩 수형점
시흥점
시흥점
시흥점
시흥점
시흥점

지멘스 상무점
약정할인50% 501호
동행문진점
이바름점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근후환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시공현
시공후
시공현
시공후
시공현
시공후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형광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판넬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지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